



TOP NEWS · 이달의 헤드라인

MUSIC INDUSTRY — 2026 가을의 문턱

솔로의 계절, "한 대의 피아노"가 말해주는 것

9월 가요계는 (여자)아이들 전소연의 첫 정규 '끝내주는 인생', 엑소 도경수의 'DOPAMINE', 샤이니 민호 등 **솔로 프로젝트**가 쏟아졌다. 화려한 그룹 사운드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음악적 정체성을 오롯이 드러내는 솔로 무대에서, 반주의 밀도와 화성의 깊이가 곡의 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다.

그 화성의 뿌리에 재즈가 있다. 팝 발라드의 세련된 코드, R&B의 텐션, 신스 편곡의 보이싱 — 오늘날 우리가 '고급스럽다'고 느끼는 사운드의 상당수가 **재즈 피아노의 화성 언어**에서 왔다.

학생 관점 — 어떤 전공이든 '화성(하모니)'을 깊이 아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간다. 이번 달, 대중음악의 화성이 흘러나온 원천 — 재즈 피아노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.

BRIEFING · 이달의 소식

NEWS 01 · 솔로

9월은 '솔로 대전' — 정체성의 무대

전소연 첫 정규, 도경수, 샤이니 민호 등 솔로가 이어졌다. 솔로는 편곡과 화성 감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 — 반주의 완성도가 핵심이다.

NEWS 02 · 컴백

베테랑의 귀환 지속

2NE1 공민지가 약 4년 9개월 만에 컴백을 예고했다. &TEAM, BOYNEXTDOOR 리패키지 등 하반기 라인업이 두텁다.

NEWS 03 · 입시

수시 실기 본격 시즌 돌입

9월은 대부분 대학 실용음악과 수시 실기가 치러지는 달. 재즈 피아노 지원자는 코드 보이싱과 컴핑의 안정감으로 승부해야 한다.

NEWS 04 · 문화

가을, 재즈 페스티벌의 계절

선선한 가을은 전통적으로 재즈 공연이 몰리는 시기다. 라이브 트리오의 인터플레이를 직접 보는 것은 최고의 화성·리듬 학습이다.

빌 에반스

Bill Evans

이달의 인물

1929. 8. 16 ~ 1980. 9. 15 — 9월의 추모 · 재즈 피아노 화성의 시인

뿌리 — 클래식과 재즈 사이

빌 에반스는 클래식으로 훈련받은 피아니스트였다. 드뷔시와 라벨의 인상주의 화성을 온몸으로 흡수한 그는, 그 색채를 재즈로 가져왔다. 빠르고 복잡한 비밥이 주류이던 1950년대에, 그는 정반대의 길 — **느리고, 서정적이고, 화성이 깊은** 연주로 자신만의 세계를 열었다.

전환점 — 'Kind of Blue'

1959년, 그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'Kind of Blue' 세션에 참여한다.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재즈 음반으로 꼽히는 이 앨범에서, 에반스의 인상주의적 보이싱은 **모달 재즈**의 문을 열었다. 'Blue in Green'의 그 아련한 화성은 그의 손에서 태어났다.

유산 — 노래하는 왼손

그가 이끈 트리오는 피아노·베이스·드럼이 서로 대화하듯 연주하는 '**인터플레이**'의 표준을 세웠다. 허비 행콕, 칩 코리아, 키스 재릿 — 이후의 모든 피아니스트가 그의 화성과 터치에 빚졌다. 1980년 9월, 그는 떠났지만 그의 보이싱은 지금도 모든 발라드 속에 살아 있다.

대표곡 Waltz for Debby · Blue in Green · Someday My Prince Will Come · Peace Piece

학생에게 "화성은 색이다. 같은 멜로디도 어떤 코드를 입히느냐가 감정을 결정한다."

◆ 한눈에 보는 빌 에반스

- 1929 뉴저지 출생, 클래식 피아노 수학
- 1958 마일스 데이비스 그룹 합류
- 1959 'Kind of Blue' 참여 — 모달 재즈
- 1961 빌리지 뱅가드 트리오 라이브 명반
- 1980 9월 15일 별세 (향년 51세)

"재즈는 결과가 아니라
과정이다."

— Bill Evans

신관웅 申官雄

국내 · 재즈피아노

한국 재즈 1세대 · '재즈 피아노의 대부' · 신관웅 빅밴드 리더

재즈가 '불모지'로 불리던 시절, 신관웅은 그 척박한 땅에 재즈 피아노의 뿌리를 내린 1세대 연주자다. 1970~80년대 한국 재즈의 기틀을 다진 그는, 오늘날 자타공인 '**한국 재즈 피아노의 대부**'로 불린다.

그는 연주자에 머물지 않았다. 신관웅 빅밴드를 이끌며 후배 연주자들에게 무대를 열어주었고, 수많은 재즈 뮤지션이 그의 밴드를 거쳐 성장했다. 익숙한 가요나 팝을 재즈의 어법으로 재해석하는 그의 연주는 — 원곡의 화음을 따라가다가도 이내 낯선 리듬과 화성으로 치고 들어오는 **즉흥의 묘미** — 재즈가 무엇인지를 대중에게 알려온 살아있는 교과서다.

활동 신관웅 빅밴드 · 각종 재즈 페스티벌 · 후학 양성

학생에게 "익숙한 곡을 낯설게 다시 들어라." 아는 멜로디에 새 화성을 입히는 순간, 재즈가 시작된다.

버드 파월 Bud Powell

해외 · 재즈피아노

1924. 9. 27 ~ 1966. 7. 31 — 9월생 · 비밥 피아노를 발명한 사람

재즈 피아노의 역사는 버드 파월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. 찰리 파커와 디지 길레스피가 관악기로 만들어낸 비밥의 언어를, 파월은 **피아노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**이었다. 그는 오른손으로 관악기처럼 길고 빠른 멜로디 라인을 노래하고, 왼손은 짧은 코드로 리듬만 툭툭 받치는 혁명적인 주법을 만들었다.

'현대 재즈 피아노 전체가 그로부터 뻗어 나왔다' — 허비 행콕의 이 한마디가 그의 위상을 말해준다. 정신질환과 가난 속에서도 그가 남긴 연주는, 빌 에반스를 포함한 **후대 모든 피아니스트의 출발점**이 되었다. 이달의 인물 빌 에반스가 존경한 스승이 바로 그였다.

대표곡 Un Poco Loco · Round Midnight · Tempus Fugit · Cleopatra's Dream

감상 포인트 오른손의 '노래하는 라인'과 왼손의 절제 — 비밥 피아노 어법의 원형.

JAZZ PIANO SPECIAL · 2026 SEPTEMBER

재즈피아노 JAZZ PIANO

보컬

드럼

기타

베이스

재즈피아노

미디

일반작곡

♪ 이론 — 3화음을 넘어 '텐션'으로

재즈 화성의 출발은 7th 코드다. 여기에 9·11·13 같은 **텐션**을 얹으면 같은 코드도 훨씬 풍부한 색을 낸다. 도-미-솔에 머물지 말고, 7th와 텐션으로 '색이 있는 화음'을 만드는 것이 재즈 피아노의 첫걸음이다.

※ 팝 발라드의 '고급스러운 코드'가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.

▶ 연습법 — 쉘 보이싱과 컴핑

왼손으로 코드의 핵심음(루트·3도·7도)만 잡는 **셸 보이싱**부터 익혀라. 그 위에 오른손으로 멜로디나 텐션을 얹는다. 메트로놈에 맞춰 코드가 바뀔 때 부드럽게 이어지는 **컴핑 (반주)** 감각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.

※ 화려한 솔로보다 '흔들리지 않는 컴핑'이 먼저다.

◆ 입시 — 코드·컴핑 안정성

재즈피아노 실기는 화려한 애드립보다 **코드 보이싱의 정확성과 컴핑의 안정감**에서 점수가 갈린다. 지정곡의 화성 진행을 정확히 짚고, 리듬을 흔들림 없이 받치는 능력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.

※ 자유곡은 자신이 100% 소화 가능한 템포로 선곡하라.

♪ 감각 — 스윙과 '주고받음'

재즈의 리듬은 '스윙'이다. 8분음표를 균등하게 치지 않고 **길게-짧게** 굴리는 감각을 몸에 익혀야 한다. 또 재즈는 혼자자 아니라 트리오의 **대화**다 — 베이스·드럼을 듣고 반응하는 귀를 길러라.

※ 스윙은 악보로 못 배운다 — 많이 듣고 따라 해야 한다.

♪ 이달의 추천 감상 — QR로 바로 듣기



Bill Evans
Waltz for Debby
▶ YouTube



Bud Powell
Round Midnight
▶ YouTube



Miles Davis
Blue in Green
▶ YouTube



Thelonious Monk
Round Midnight
▶ YouTube

"재즈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. 완벽함보다 그 순간의 대화다."

— 이달의 한 줄 (빌 에반스에게서)



THIS MONTH MISSION — 재즈피아노

가장 좋아하는 팝 발라드 1곡의 코드를 찾아 **7th·텐션**을 얹어 보기 → 왼손 **셸 보이싱**으로 컴핑 4마디 연습 → 빌 에반스 'Waltz for Debby'를 들으며 '화성의 색'을 한 줄로 메모하기.